

“무안·진도·순천만·보성 등 갯벌 국립공원 지정...확실히 보전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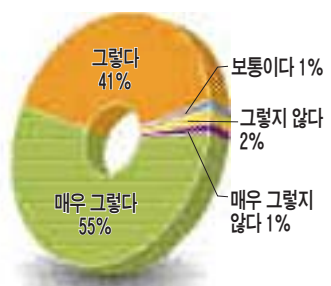
무안·진도·순천만·보성 갯벌 등을 국립공원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김경원 환경운동연합 습지센터 팀장은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과 ‘환경운동연합’이 24일 서울 남산 ‘문학의 집, 서울’에서 열린 ‘국립공원 추가확대 지정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순천만갯벌과 무안갯벌, 신안갯벌 등 한국 갯벌생태계의 중요성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갯벌이 국립공원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독일은 지난 1985년부터 갯벌국립공원을 지정했다”고 외국 사례를 소개하고 “갯벌 생태계를 중요한 자연생태계로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국립 공원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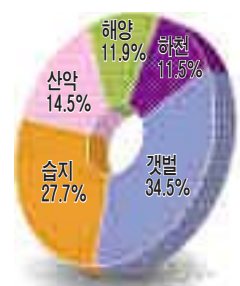
인하대학교 서해연안환경연구센

환경단체 등 심포지엄·설문조사

■갯벌국립공원 지정 필요성



■국립공원 추가지정 유형



터 최종교 교수도 “무안 갯벌과 같은 연안습지 보호구역을 국립공원으로 추가 지정해 보다 체계적으로 생태계를 보전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기준 상지대 관광학부 교수도 최근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과 전문가,

환경단체 회원 등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의 96%가 ‘국립공원의 추가지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나타냈으며, 국립공원을 추가 지정한다면 갯벌이어야 한다는 답이 34.5%로 가장 많았다고 소개했다. 조사결과, 국립공원 추가지정이 필

요한 지역은 전남북 연안 갯벌과 강화도 갯벌과 새만금, 우포늪, 4대 강 발원지 유역 등이 꼽혔다.

국립공원 관리체계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위탁하는 현행 방식보다는 국가직영 관리가 적합하다는 응답이 89%를 차지했고, 77%가 ‘공원 내 문화유산을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전남연안에서는 무안갯벌(35.59km), 진도갯벌(1.238km), 순천만 갯벌(28km), 보성갯벌(7.5km) 등이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지난 1967년 지리산부터 1988년 월출산까지 모두 20곳(15곳이 산악형)이 지정됐으며 전체 면적은 6천580km(육지 3천898km, 해상 2천680km)로 전 국토의 약 6.6%를 차지한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금남로 4가역 ‘토종 민물고기 생태 학습장’

광주 금남로 4가역에 들어선 토종 민물고기 자연생태 학습장.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오행원)는 10개의 대형 수족관을 비치, 남지리·동사리·쉬리·모래무지 등 50여 종 1천여 마리의 토종 담수어류를 선보여 어린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상수원’ 주암댐·섬진강댐 상류 하수도 보급률 낮아 오염 우려

수자원공사 국감자료

다목적 댐인 주암댐과 섬진강댐 상류의 하수도 보급률이 크게 낮아 하수처리시설 미비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가 크다.

24일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정희수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섬진강댐 상류의 하수도 보급률은 9.7%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특히,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주암댐

상류의 하수도 보급률도 48.8%에 그쳐, 전국 평균 하수도 보급률 83.5%에 크게 못 미쳤다.

특히 댐은 한번 오염되면 사실상 수질회복이 어려워 담수 초기부터 최상의 수질을 확보해야 함에도 수질오염의 최대원인인 하수도 보급률은 최근 3년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이 같은 낮은 하수도 보급률은 댐 운영 및 관리는 수자원 공사가 맡고 있고, 하수처리시설 확충은 환경부 및 지자체가 맡는 등 관리가 다원화돼 있는 것은 한 몫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수질 보호를 위해서는 댐 운영관리 따로, 오염원 관리 따로, 하수처리시설 확충 따르던 현행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한 곳에서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해양 환경오염 사범 급증

해경, 전남서 올 261건 적발...전년도 2배 넘어

지난 8일 신안군 임자도 불무기도 앞 해상. 근처를 항해하던 653t급 화물선 ‘배××호’(선장 김모·47)가 범선 커(bunker) A유 7.2t를 몰래 버리고 있었다. ‘배××호’의 불법 기름 유출은 목포해경 경비정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선주와 선장에게는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전남지역 항 내(港內)에서 해양환경 저해사범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올해 적발된 환경오염은 전년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해경은 이 중 기름배출행위 등 48건은 형사입건하고 무단방치·불법점용행위 등 15건은 행정지도 조치했다.

연수해경은 같은 기간 동안 해양환경 특별단속에 나서 39건을 적발했다.

환경오염 유형은 ▲불법점용 금지행위 위반 11건(28.2%) ▲생활폐기물 소각 9건(23.1%) ▲이무규정 위반 5건(12.8%) ▲기름유출행위 1건(2.6%) 등으로 조사됐다. 이 중 6건은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33건은 행정지도 처분 명령을 내렸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들어 현재 총 203건(지난해 113건), 연수해경은 58건(지난해 11건)의 해양환경 사범을 단속했다.

/목포=이상희기자 lsh@kwangju.co.kr

세탁업소 회수건조기 설치 저조

대기오염 악영향

세탁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대기중 방출을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세탁업소 회수건조기(온재 회수기) 설치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복심(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무시행 1년이 넘도록 회수건조기를 설치한 세탁소는 전국 3만3천60개 업소 중 6.3%에 불과한 2천126곳에 불과하다고 24일 밝혔다.

광주지역은 1천462개 세탁업소 중 4.9%에 불과한 71개 업체, 전남지역은 1천487개 업소 중 9%인 134곳만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설치율이 낮은 것은 대부분의 세탁소가 영세성을 면치못해 100만~300만원에 달하는 회수기 구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탁소 드라이클러닝 과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에는 벤젠과 톨루엔 등이 포함돼 있으며, 정부는 이들 발암물질이 대기중 방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회수건조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회수건조기 설치 의무제가 시행된 뒤 생산업체가 난립, 성능이나 안전성 문제가 있는 제품들도 시판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무등산관리,배출가스 없는 ‘전기 스쿠터’ 로

광주시에 무등산공원 관리사무소등 산하 기관에 친환경 ‘전기 스쿠터’를 보급하기로 했다.

전기스쿠터는 220V 가정용 전원으로 충전한 배터리를 운행해 배출가스와 소음이 전혀 없고, 1회 충전시 약 90km를 주행할 수 있어 일반 오토바이와 성능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연료유지비는 10분의 1 수준이다.

반면,휘발유를 사용하는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 일산화탄소(CO)는 10배, 탄화수소(HC)는 30배 등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시는 올해 20대를 들여 무등



산공원관리사무소,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상수도본부, 농산물도매시장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대당 200만원선인 전기스쿠터는 일반이륜차와 가격 차이인 100만원을 정부와 시에서 지원한다.

시는 25일 오후 3시 시청앞 문화광장에서 전기 스쿠터 설명회와 시승회를 개최한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녹색연합 등 27일 전남대서 ‘빛고를 아름다운 행사’

‘광주·전남녹색연합’은 ‘아름다운 가게’·‘광주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오는 27일 전남대학교 일원에서 ‘빛고를 아름다운 행사’를 개최한다.

‘빛고를 최대 나눔장터’(전남대 운동장)에서는 재활용품을 사고 팔며, 수익금의 30%는 난치병 어린이를 돕는 데 사용된다. ‘용봉천 거리문화제’

엔 예술인들의 환경 관련 작품들이 전시되며, ‘아름다운 지구인 한마당’(≪후문≫에서는 에너지 절약 체험 및 홍보 등이 펼쳐진다.

이외 반전 캠페인·미안마 민주화운동 지지 서명운동·댄스 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광주 보건환경연구원

환경 분야 측정 ‘우수’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환경분야 측정·분석 능력 평가(精度管理)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원은 대기분야·먹는 물·수질·

폐기물·수질분야 등 5개 분야 26항목에 대한 숙련도 시험 평가에서 모두 ‘매우 만족’ 평가를 받았다.

분야별 평가 대상은 ▲대기: 1개 ▲먹는 물: 암모니아성질소 등 8개 ▲수질: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등 11개 ▲폐기물: 납 등 3개 ▲토양: 유류(BTEX) 등 3개 항목이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칼레오” 원격외선, **집안난방이 혁명적입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온도가 높고 쾌적한 난방을 제공합니다. (난방효율 80% 이상, 온도가 20~25도 유지)

◆실내 공기질이 좋아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실내 공기질 개선, 먼지, 냄새 제거)

◆실용적이고 아름다운 디자인을 제공합니다. (벽걸이, 바닥걸이, 천장걸이 등 다양한 디자인)

◆안전하고 튼튼합니다. (안전장치, 내화재질, 내충격성 등)

◆전문 기술자가 방문하여 설치, 유지보수를 제공합니다. (24시간 긴급서비스, 무료 상담)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주]태양상사 동구구로 100번 2층 TEL (062)282-0101

카페검색 마늘주사 후루민

http://cafe.daum.net/furumin

후루민 : Korean Provedo 주류회사(주식)
 대표전화 : 02-383-5883

마늘주사 후루민에 후루민실, 후루민 상담실 및 일반 후루민을 모집합니다